

## 실수해도 괜찮아요: 치매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Where Mistakes Are Welcome: New Approaches to Dementia Inclusion

*Issue Focus, 7(3), pp. 41–50, 2025*

Sina Yi (이신아)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ASEM Global Ageing Center) &*

*서울특별시청(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치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이들을 돌보는 돌봄 파트너는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관계 단절로 나타나는 질병의 신체적·심리적 부담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뒤따르는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에도 직면한다(Alzheimer's Disease International, 2024). 치매를 가진 사람의 경우 기억력 저하와 인지 기능 감소로 일상생활의 범위가 점차 제한되기 쉽고,

이신아(Sina Yi)는 연세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였으며, 2011년 서울특별시 행정직 공무원으로 공직에 입문하였다. 2024년부터 2026년 사이 2년간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ASEM Global Ageing Center, AGAC)에 파견되어 근무하였다. 이 기간 동안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우수 사례를 다수 발굴·소개한 *노인인권 취재노트(Best Practices: Advancing Older Persons' Rights)* 프로젝트를 담당하였다. 또한 노인 인권과 관련된 최신 연구 동향에 대해 대내외 브리핑을 제공하고, 센터의 홍보 업무를 담당하였다. 저자는 2025 AGAC 이슈포커스(AGAC Issue Focus) 스페셜호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한국의 모범 사례들(Best Practices in South Korea for Promoting the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의 총편집자이기도 하다. 이 외에도 서울시청에서 근무하며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조례*」의 초안을 2012년 작성하였으며, 이후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 기획담당관에서 의회 및 조례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아울러 초등학생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공공 돌봄 체계인 *우리동네키움센터*의 도입과 확대에도 기여하였다.

가족이나 친구, 돌봄 파트너 역시 돌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사회적 활동을 줄이게 되면서 심리적 스트레스가 더욱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치매를 가진 사람과 돌봄 파트너가 함께 만나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메모리 카페(Memory Cafe)'라는 개념이 등장하였으며, 이는 치매로 인한 사회적 고립을 완화하기 위한 하나의 실천적 대안으로 자리 잡아 왔다(Alzheimer's Disease International, n.d.). '알츠하이머 카페(Alzheimer Cafe)'라고도 불리는 이 공간은 1997년 네덜란드에서 Bèrè Miesen의 제안으로 처음 시작되었으며, 치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돌봄 파트너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는 한편, 치매에 전문성을 지니거나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개방된 장소로 운영되어 왔다(Alzheimer's Disease International, n.d.). 이후 메모리 카페는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고(e.g., Engaging Dementia, n.d.; Francis, 2000; Seia & Baldo, 2025), 최근에는 세계 각국에서 그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e.g., Kakuchi, 2023; McFarlane, 2025), 이러한 확산은 치매 관련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사회심리적 안녕을 증진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e.g., Dow et al., 2011; Innes et al., 2022; Protoolis et al., 2022).

일부 사례에서는 메모리 카페의 구상을 한 단계 더 확장하여, 치매를 가진 사람이 직접 고객을 응대하는 카페나 식당에 대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공간은 단순히 교류의 장소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치매를 가진 사람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시 수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며, 치매에 대한 공공의 인식을 새롭게 형성하는 실험적 모델로 작동한다. 이와 같은 모델의 선구적 사례로는 2017년 일본에서 시작된 *주문을 틀리는 요리점*[注文をまちがえる料理店, the Restaurant of Mistaken Orders]이 있다. 한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프로젝트로 2018년부터 *기억다방*[Memory Cafe]이 운영

되고 있다. 이 글은 이 두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돌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모색하고 긍정적인 사회 변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주문을 틀리는 요리점(The Restaurant of Mistaken Orders)

*주문을 틀리는 요리점*은 2017년 도쿄에서 운영된 독특한 팝업 레스토랑으로, 방송 프로듀서 오구니 시로(Shiro Oguni)의 구상에서 출발하였다(Oguni, 2018). 이 명칭은 미야자와 겐지(Kenji Miyazawa)의 동화 *주문이 많은 요리점*[The Restaurant of Many Orders]를 유쾌하게 패러디한 것이다. 이 식당에서는 치매를 가진 사람들이 홀 직원으로 일하며, 고객의 주문을 받고 음식을 서빙한다. 치매의 특성상 예상하지 못한 실수가 자주 발생하는데, 음식이 다른 테이블로 전달되거나 상차림에 평소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공간에서는 고객과 직원 모두 이러한 상황을 “실수해도 괜찮고, 조금 늦어도 괜찮다”는 느긋한 태도로 받아들인다. 이러한 인식은 식당의 로고에 상징적으로 담겨 있다. “Mistaken”이라는 단어의 K를 90도 기울이고 혀를 내민 얼굴을 덧붙인 로고는, 실수 뒤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머쓱한 표정을 형상화한 것이다. 이는 치매를 가진 사람이 저지르는 작은 실수가 웃음과 즐거움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이 식당이 지향하는 가치—열린 태도와 관용, 이해와 너그러움, 수용과 포용, 소통과 연결,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유와 돌봄—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Oguni, 2018).

치매를 가진 사람은 과거에 사회적으로 매우 활발히 활동했던 경우라 하더라도, 기억력과 학습 능력, 의사소통 능력이 점차 약화되며, 질병이 진행될수록 일상적인 일을 수

행하는 데 점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치매를 가진 사람이 이전이나 현재 수행하던 역할을 지속하기 어렵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자신감을 잃거나 사회적 관계에서 물러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기 쉽다. 주문을 틀리는 요리점은 이들에게 여전히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이 남아 있다는 점을 확인하게 하고, 다양한 배경을 지닌 사람들과 직접 만나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식당은 치매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하고자 하는 의지와 동기를 지닌 치매 노인을 홀 직원으로 모집한다(Oguni, 2018). 이들에게는 시간당 약 1,000엔(미화 약 6.40달러)의 사례비가 지급된다. 현장에는 치매 돌봄 경험을 갖춘 관리자가 상주하며,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지원을 제공한다. 주문을 틀리는 요리점은 하루 약 네 시간 정도 운영되는데(예,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는 치매가 진행될수록 쉽게 피로해지는 특성을 고려해 마련된 운영 방식이다. 몇 시간 동안 계속 서서 서빙하는 일은 치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식당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침대가 놓인 별도의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주문서에는 테이블 번호와 메뉴 번호가 함께 적혀 있으며, 고객은 주문하고자 하는 음식의 이름에 직접 동그라미를 치도록 안내받는다. 이는 홀 업무의 흐름을 보다 쉽게 따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이다. 주문을 받는 치매 노인의 경우 내용을 빠르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요청 사항을 잊어버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직원이 주문서를 고객에게 직접 건네어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이 활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문과 다른 음식이 제공되는 경우는 여전히 흔하게 발생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은 사전에 고객에게 충분히 안내되며, 실제 상황에서도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Oguni, 2018).

주문을 틀리는 요리점에서는 실수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며, 이를 함께 즐기는 분위기가 형성된다(Government of Japan, 2019).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치매를 가진 사람이 저지르는 실수가 외부의 도움을 통해 바로잡아야 할 불편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그러한 실수가 해가 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뿐만 아니라, 어떤 실수가 벌어질지 기대하며 흥미롭게 바라보는 대상이 되기도 한다(Georgescu, 2023; Oguni, 2018).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치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보다 자신감을 갖고 일상에 참여하도록 돕는 동시에, 이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새롭게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이 식당을 기획한 오구니 시로(Shiro Oguni)는 방송 프로듀서로 일하며 치매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그룹홈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이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되었다(Oguni, 2018). 그는 그곳에서 거주자들이 직접 메뉴를 고르고, 식재료를 구입하며, 스스로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을 관찰하였다. 방문 당일 점심 메뉴로는 햄버그 스테이크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제공된 음식은 만두국이었다. 그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그 상황을 문제로 여기지 않는 주변의 반응을 보며 그 순간 "문제가 될 것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이후 주문을 틀리는 요리점을 구상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는 인테리어 디자인, 미디어, 모금, 치매 돌봄과 간병, 요리 및 외식 경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아 실행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필요한 재원이 마련되면서, 이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되었다(Oguni, 2018).

2017년 6월 사전 공개 행사를 거친 뒤, 같은 해 9월 도쿄 롯폰기에서 주문을 틀리는 요리점의 첫 공식 행사가 열렸다(Restaurant of Mistaken Orders, n.d.). 이 모델은 곧 주

목을 받았고, 2017년 9월 마치다, 2018년 5월 시즈오카, 그리고 2019년 3월에는 일본 후생노동성 청사 내에서도 운영되는 등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이후 이 모델은 국내외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아, 2019 Cannes Lions 디자인 부문 실버, 2019 London International Awards 실버 및 브론즈, 2019 ACC Tokyo Creativity Awards 그랑프리를 수상하였다(Restaurant of Mistaken Orders, n.d.). 이는 모두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권위를 지닌 상으로 알려져 있다. 주문을 틀리는 요리점과 유사한 유형의 시도는 일본 각지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오카야마현 구라시키시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레스토랑*[世界一やさしいレストラン, the Kindest Restaurant in the World]이 운영되었고 (KSB, 2019), 아이치현 도요타시에서도 동일한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Murase, 2018). 또한 후쿠시마현 스카가와시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는 라멘집*[ハプニングラーメン, Happening Ramen]과 같은 프로젝트가 시행되었다(NPO Houshinkai, n.d.). 이 밖에도 일본 각지에서 다양한 형태의 관련 프로젝트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1-2일간 진행되는 단기 행사 형태였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월 2회 또는 4회 등 비교적 정기적으로 운영되기도 하였다.

2018년에는 주문을 틀리는 요리점의 초기 멤버들이 중심이 되어 공익사단법인이 설립되었다. 법인 대표는 식당의 출범 초기부터 오구니 시로와 함께 활동해 온 치매 돌봄 전문가 와다 유키오(Yukio Wada)가 맡았다. 이 단체는 일본 전역에서 치매를 가진 사람이 레스토랑의 홀 직원으로 참여하는 단기 행사를 기획·운영하는 한편, 치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모금 활동도 함께 전개하고 있다. 또한 유사한 시도를 추진하고자 하는 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관련 사례: 서울의 기억다방(A Related Case: The Memory Cafe in Seoul)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에서도 치매 친화적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유사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대표적 사례가 서울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억다방*이다(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18). (영어인 '메모리 카페'를 연상시키는 이 명칭 '기억다방'은 기억을 부르는 다양한 방법의 약자이다.) 이 사업은 제약회사 한독(Handok), 서울특별시, 서울시광역치매센터, 그리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치매안심센터가 공동으로 추진한 치매 인식 개선 캠페인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공간에서는 경도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고령자가 카페 직원으로 근무하며, 주문을 받고 음료를 제조·제공한다(그림 1 참조). 이들에게는 시간당 10,000원(미화 약 7달러)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주문을 틀리는 요리점과 마찬가지로, 제공된 음료가 주문과 다르거나 서비스가 다소 지연되더라도 고객은 이를 이해하고 수용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기억다방은 치매 관련 행사를 포함한 다양한 지역 행사에서 이동식 푸드트럭 형태(이동형 카페)로 운영되거나, 자치구 치매안심센터 내에 상설 카페 형태(고정형 카페)로 설치되어 운영된다. 고정형 기억다방은 2021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현재 강동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북구, 송파구, 은평구 등 10개 자치구에서 운영되고 있다(그림 2; Handok, 2024). 이들 고정형 기억다방은 모두 2026년에도 운영이 지속될 예정이다(Handok & Seoul Metropolitan Dementia Center, personal communication, November 26, 2025). 운영 시간은 센터별로 다르며, 근무시간은 개인별로 다르나 월 최대 8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 2024년 한 해 동안 기억다방은 총

888회 운영되었는데, 이 중 859회는 고정형 카페 형태였고 29회는 이동형 카페 형태였다. 해당 기간 동안 누적 방문객 수는 32,138명이었으며, 치매를 가지고 살아가는 고령자 51명이 카페 운영에 참여하였다(Handok, 2025). 2025년에는 1월부터 10월까지 고정형 기억다방 1,005회와 이동형 기억다방 18회가 운영되었고, 누적 방문객 수는 27,754명, 근무에 참여한 치매 노인은 38명이었다(Handok & Seoul Metropolitan Dementia Center, personal communication, November 26, 2025).

이러한 시도는 치매를 가지고 살아가는 고령자와 지역사회 구성원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치매를 가진 사람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 기여하는 동시에 치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완화하는 효과를 지닌다. 예를 들어, 카페에서 근무하는 한 직원은 자신의 변화된 감정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처음에는 음료수 이름이 어려워서 [기억하기가] 걱정됐는데 이려고 보니 좋아요. 재미있어요”(Dongjak-gu Dementia Relief Center, 2023, 03:06). 또 다른 사례에서 주문을 잊은 직원에게 한 카페 이용객은 이렇게 반응하였다. “아니 사람인데 하다 보면 그렇고 잊어버릴 수도 있지요”(Dongjak-gu Dementia Relief Center, 2023, 02:32).

운영 시간과 규모에는 아직 제약이 있지만, 이러한 노력은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치매 돌봄 모델로서 점차 주목을 받고 있다. 한독과 서울시광역치매센터에 따르면, 기억다방은 치매 돌봄 영역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으며, 치매를 가지고 살아가는 고령자의 사회적 고립을 완화하고 사회 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personal communication, November 26, 2025). 고정형 기억다방은 자치구 치매안심센터 내에 위치해 있어, 방문객과 근무자 모두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인지 검사와 상

담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동형 기억다방은 센터 외부의 일상적 공간에서 치매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서울특별시 는 기억다방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2026년부터 경도인지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참여형 일자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독과 서울시광역치매센터는 “[기억다방은] 다른 사업에 확장 및 응용하기 좋은 모델로 인정받고 있다”고 설명한다(Handok and Seoul Metropolitan Dementia Center, personal communication, November 26, 2025).

## 그림 1

## 서울의 기억다방



주. (a) 2024년 서울 강서구에서 운영된 이동형 기억다방. Copyright by Handok. (b) (a)와 동일한 이동형 기억다방의 모습. 사진 오른쪽에서는 치매 예방을 위한 인지 활동이 연계 행사로 함께 진행되었다. Copyright by Handok. (c) 서울 서대문구 치매안심센터 내에 설치된 고정형 기억다방. By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21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39621](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39621)).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Type 4. (d) (c)와 동일한 고정형 기억다방의 모습. By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21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39621](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39621)).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Type 4.

그림 2



주. 서울시 내 고정형 기억다방이 운영되고 있는 10개 자치구가 지도에서 커피잔 아이콘으로 표시되어 있다.

### 마치는 글(Conclusion)

주문을 틀리는 요리점과 기억다방은 단순한 식음 공간을 넘어서는 의미를 지닌다. 이들 공간은 치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의미 있는 역할을 계속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소이다. 실수를 자유와 돌봄의 관점으로 받아

들이고, 이를 함께 웃고 즐기는 순간으로 전환함으로써, 이러한 시도는 치매에 대한 개인적·사회적 낙인을 완화하고, 모든 사람이 존엄과 존중을 받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작지만 분명한 발걸음을 제시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원칙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누구에게도 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거나 종교적·문화적으로 금기시되는 음식과 음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문을 틀리는 요리점과 기억다방은 일본과 한국에 국한되지 않고, 급속한 고령화를 겪고 있는 다른 국가들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치매를 가진 사람이 사회와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은 그것이 비록 단기 행사의 형태라 하더라도, 그 효과는 개인에 그치지 않고 가족과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 주문을 틀리는 요리점과 기억다방과 같은 실험적이면서도 따뜻한 프로젝트의 확산은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본 논문의 초안은 노인인권정책센터의 *노인인권 추재노트*[Best Practices: Advancing Older Persons' Rights]에 수록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고령자의 인권 증진에 기여한 한국의 다양한 케이스를 조명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례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업과 비영리 법인 등 민간 부문의 활동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과 민간 부문이 협력하여 고령자의 인권을 증진할 수 있는 방식이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보여준다.)

## References

- Alzheimer's Disease International. (2024). *World Alzheimer Report 2024: Global changes in attitudes to dementia*. <https://www.alzint.org/resource/world-alzheimer-report-2024/>
- Alzheimer's Disease International. (n.d.). *Alzheimer cafés*. <https://www.alzint.org/what-we-do/policy/dementia-friendly-communities/alzheimer-cafes/>
- Dongjak-gu Dementia Relief Center. (2023, August 16). *서울시 고정형 기억다방: 바리스타의 하루* [Seoul's permanent Memory Cafe: One day with a barista]. <https://www.youtube.com/watch?v=xqWSr7eCqio>
- Dow, B., Haralambous, B., Hempton, C., Hunt, S., & Calleja, D. (2011). Evaluation of Alzheimer's Australia Vic Memory Lane Cafés. *International Psychogeriatrics*, 23(2), 246–255. <https://doi.org/10.1017/S1041610210001560>
- Engaging Dementia. (n.d.). *Dementia café*. <https://engagingdementia.ie/what-we-do/community-events/dementia-cafe/>
- Francis, J. (2000, November 22). Cafe complete. *The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00/nov/22/voluntarysector.socialcare1>
- Georgescu, P. (2023, August 18). The Restaurant of Mistaken Orders. *Forbes*. <https://www.forbes.com/sites/justcapital/2023/08/18/the-restaurant-of-mistaken-orders/>
- Government of Japan. (2019). *The Restaurant of Mistaken Orders brings smiles*. [https://www.japan.go.jp/tomodachi/2019/winter2019/restaurant\\_of\\_mistaken\\_orders.html](https://www.japan.go.jp/tomodachi/2019/winter2019/restaurant_of_mistaken_orders.html)
- Handok. (2024, October 14). *한독, 허준 축제 행사장에서 '기억다방' 캠페인 진행* [Handok will host a 'Memory cafe' campaign at the Heo Jun festival]. <https://www.handok.co.kr/board/pressView?idx=4338>
- Handok. (2025). *2024 한독 CSR report* [2024 Handok CSR report]. <https://www.handok.co.kr/board/noticeView?idx=4381&page=1>
- Innes, A., Chesterton, L., Morris, L., Smith, S. K., & Bushell, S. (2022). Perspectives of people living with dementia and their care partners about the impact on social health when participating in a co-designed dementia café. *Health & Social Care in the Community*, 30(4), e1375–e1383. <https://doi.org/10.1111/hsc.13545>

- Kakuchi, S. (2023, December 22). *Dementia cafes in Japan: Nurturing hope and dignity amidst an aging society*. JSTORIES. <https://jstories.media/article/dementia-cafe>
- KSB. (2019, June 19). 失敗も笑顔で見守って 障害のある人が接客する「世界一やさしいレストラン」が期間限定でオープン 岡山・倉敷市 [The world's friendliest restaurant opens for a limited period in Okayama and Kurashiki, where staff with disabilities serve customers who smile even when they make mistakes]. <https://news.ksb.co.jp/article/13846134>
- McFarlane, L. (2025, May 31). Memory Cafes offer camaraderie and fun for people with dementia—And their caregivers. *NPR*. <https://www.npr.org/sections/shots-health-news/2025/05/31/nx-s1-5317646/memory-cafes-dementia-caregiving-respite-social-support>
- Murase M. (2018, October 19). 世界一やさしいレストラン 開催報告 [Report on the world's kindest restaurant]. Ready For. [https://readyfor.jp/projects/sekai1restaurant/accomplish\\_report](https://readyfor.jp/projects/sekai1restaurant/accomplish_report)
- NPO Houshinkai. (n.d.). 地域・社会と共に [Together with the local community and society]. <http://houshinkai.jp/effort/community/>
- Oguni, S. (2018). *주문을 틀리는 요리점* [the Restaurant of Mistaken Orders] (Y. Kim, Trans.). Woongjinbook.
- Protoolis, H. A., Burton, J., Riley, L., & Jancey, J. (2022). More than memory: A qualitative analysis of carer-reported psychosocial benefits of Memory Cafés. *Health Promotion Journal of Australia*, 33(Suppl 1), 358–366. <https://doi.org/10.1002/hpja.573>
- Restaurant of Mistaken Orders. (n.d.). *The Restaurant of Mistaken Orders*. <http://www.mistakenorders.com/en/home.html>
- Seia, C., & Baldo, E. (2025, September 30). *Beating loneliness in Alzheimer's with a café*. IBSA Foundation for Scientific Research. <https://www.ibsafoundation.org/en/blog/beating-loneliness-in-alzheimers-with-a-café>
-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18, June 20). *경증치매 바리스타의 특별한 커피 '기억다방': 서울 전역 치매예방캠페인* [Special coffee served by baristas with mild dementia at the 'Memory Cafe': A dementia prevention campaign in Seoul].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262690](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262690)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21, May 3). *서울시, '기억다방' 금천·서대문구 치매센터*

*내 카페로 운영*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operates a 'Memory cafe' in the Geumcheon-gu and Seodaemun-gu Dementia Relief Centers].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39621](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39621)